

란 말이다. 몸은 하나인데 각양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지체를 갖고 있다. 이 모든 지체는 서로를 알고 도와감으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교회도 서로 알고 서로 의존하며 도와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산 교체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너무 커서는 불가능하다. 대형교회에서는 한 몸으로서의 기능을 행사하는 공동체의 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다고 온 세계에 알려져 있다. 많은 목사들이 제일 큰 교회당을 짓고 가장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이는 놀랄 만한 의욕이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 깊이 있는 교체를 나눌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교회를 세우고, 나머지 힘을 이와 같은 교회들을 더욱 많이 세우는 데 기울임이 성경적이 아닐까?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하셨다(요. 10: 14). 천 명 이상 수천 명의 교인을 가질 때,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일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며, 양들도 서로 서로를 알고 산 교체를 나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목사가 신자 개개인을 알고, 신자들도 목사를 알며, 모든 신자들이 서로를 알고 교체를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산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맺는말

이상 성경이 가르치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따라 한국교회 생신의 길을 몇가지 제시해 보았다. 물론 교회 생신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교회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인간의 봉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를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왕이신 그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세로 교회 생신을 위한 봉사에 임할 때 그는 우리들의 봉사를 기쁘게 받아 주시며 당신의 교회를 새롭게 해 가실 것이다.)

도전받는 현대 교회

홍반식 교수

종교개혁이 있은 이후 4세기 반이 지나는 현 시점에서 개신교 교회를 중심하여 생각할 때, 교회의 순결과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대 교회를 향하여 도전해 오고 있다.

현대 개신교를 중심으로 신앙운동을 분석할 때, 대략 세 가지 그룹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음주의 운동

둘째, 불건전한 신앙 운동

셋째, 성경 중심의 교회관을 가지고 신앙 운동을 하려는 개혁주의 신앙 운동이다.)

1. 사회 복음주의 운동

이 운동은 20세기 중엽부터 양성화되기 시작하여 세계 교회 협의회를 통하여 활발하게 움직인다. 1940년 이후 이 운동은 교회의 사회화를 주장하면서 교회가 과거에 혁신되었으며 현대 교회도 세상에 대한 의무를 다 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후 1960년 이후에 이 운동은 교회의 세속화를 주장하면서 교회와 사회와의 구분을 제거하는 주장을 하고 교회는 사회 속의 한 단체인 바, 사회 안에 서의 교회로서, 세상의 정화와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1970년 이후 그들은 교회의 정치화를 내세우고, 교회는 소극적인 사회 참여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세상의 억눌린 자와 좌취당한 자와 소외당한 자를 해방시켜 참 자유를 얻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치·사회·인권 등의 분야에서 참된 자유를 가지게 하므로 인간의 삶에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투쟁을 주장하고 정치적 세력으로서의 교회를 주장한다. 이 운동은 공산주의 유물론 운동과도 깊은 관련을 가진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세계 적화 투쟁에 물질적·정신적 협조를 제공해 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구령적 복음을 사회 혁명의 사상 원리로 바꾸는 운동이다.)

2. 불전전한 신앙 운동

이 운동은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며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주장하는 교회 환경에서 성행하는 운동이다.

신앙의 표준인 성경, 즉 객관적인 신앙의 규범과 그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화보다 주관적인 신앙 체험을 중요시한다. 방언, 병고침, 간증, 특이한 예배 의식 등을 통해서 인간 심성에 감령적인 자극을 줌으로써 쾌감을 갖게 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현대 교회 성장 면에서 볼 때, 성장의 정도가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하는 운동이다. 우리 한국에도 이러한 운동으로 많은

교회가 움직이는 사실을 보게 된다.

3. 성경 중심 교회관을 갖는 개혁주의 신앙 운동

이 운동은 한국의 장로교회가 처음부터 복음을 받았던 운동이다. 이 운동의 교회 발전상은 여러 면에서 부진한 상태이며, 한국의 보수적인 장로교회도 이 운동 범주에 속한다. 한국의 보수 장로교 내지 개혁주의 교회 신앙 운동이 직면한 문제들을 몇 가지로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다.

1) 교역자 양성의 다원화

(교역자 양성의 기관이 다원화되어 일정한 표준을 확보치 못하고 교역자의 자격이 다양화되는 형편은 현대 교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 매년 신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6,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들의 지적·신앙적 수준은 실로 다양하다.

본래 구미 제국에서 고등 교육을 시작한 선구자들이 세운 그 교육의 목적은 세 종류의 인재 양성을 염두에 둔 것인데, 즉 의료인, 의사, 법조인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성직자, 목사 등이었다. 지금도 교육 분야에서 질서가 있는 나라에서는 성직자가 되는 데는 고등 교육을 받은 후에 적어도 3년간의 신학 수련을 거쳐야 한다. 한국에서 매년 많은 수의 목사 후보생이 신학교에서 배출되면서 그 지적·신앙적 수준이 성직자 후보자로서의 수준에 미달될 때, 교회 혼란은 오게 되는 것이다.

2) 교회 성장 문제

교회 성장이 급진하는 경향은 주로 불전전한 신앙 운동 집단에서 볼 수 있다. 반면에 개혁주의 신앙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해석과 전파를 위주로 하는 종교 의식을 중심한 것이니 인위적인 쾌감을 갖지 못하여, 주위에서 일어나는 동적이요 양적인 불전전한 신앙 운동을 목격

함에 있어서 혹종의 위압감을 느끼며, 그 운동을 모방하려는 충동도 갖게 된다.

3) 교회 지도자층의 긴장 문제

이 긴장은 주로 목사와 장로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보수주의 개혁 신앙 운동을 위주로 하는 교회 영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긴장이 조성되는 원인을 생각해볼 때, 목사의 훈련 부족과 지적 빈약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 교인들의 지적 수준은 날이 갈수록 향상되는 경향이니, 교역자와 교인 사이의 조화가 어려워진 형편이다. 또 목사의 세속주의, 교권주의, 안일주의 역시 긴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생각인데, 장로는 주인이고, 교역자는 손님이라는 관념은 비성경적이며 교회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장로가 무보수로 봉사하는 반면, 목사의 생활의 지출을 의식하는 관념도 긴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교회란 장로와 교회도 아니며 목사의 교회도 아니다.(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엡 1: 20-23))

이 교회의 양떼를 목사에게 맡기는 것이 교회 역사에 나타난 전통이며 장로는 평신도에 속하나 목사는 특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맡일 목회자로서 세움을 입은 자이다. 이러한 긴장 문제는 정당한 교회관과 교회 직분자에 대한 지식을 가짐으로써 신앙의 사랑을 실천에 옮겨 해결 해 나가야 한다.

4) 귀족 교회 풍조

현대 복음주의 교회 운동이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는 교회가 불우한 자, 갖지 못한 자의 편이 되어 그들에게 힘을 주고, 도와주는 분위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점이다. 그래서 교회가 가진 자와 힘있는 자의 편이 되어 귀족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풍조가 있다. 오늘날의 교회가 구체와 전도에 인색하고 교회 자체에 대한 시설 확충과 행사에 관련된 투자에 치중하

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병든 자,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약한 자, 갖지 못한 자의 편에서 복음을 전하였으며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다.

5) 사회 참여 문제

현대 복음주의 교회는 사회 복음주의로부터 교회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안일과 이기주의에 기울어진다는 평을 받는다. 복음주의 청년층은 사회주의, 사회복음 운동을 고상하게 인식하고 혹종의 열등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기독교와 사회 참여 문제는 성경에 입각하여 정당하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 복음주의에서는 정교 분리에 한계가 없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정치를 지배하고 평한 예를 들고, 현대 교회의 정교 분리 사상을 부인한다. 구약은 신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교와 정치를 함께 다스려 하나님 중심의 국가로 세워 나가는 원리이니, 신약 시대의 교회와 사회관의 관계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회복음주의에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마 5: 13),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19: 19),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 8), 예수님의 전한 복음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부요 함과 자유를 주며 눈먼 자에게 광명을 준다는(눅 4: 18, 19) 말씀을 내세우며 교회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주장한다. 이상에서 말한 성구들은 교회가 사회의 한 부분으로 그 혁명에 참여하기 위한 말이라기보다는 신자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한다. 교회는 그 원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 멸망을 피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 그 의무이며,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신자가 이 세상에서 선량한 시민으로, 관·공리로, 군인으로, 실업인으로 각양의 직장을 편수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우수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훈련장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했고, 정치·문화·경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생존 그 자체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므로 신자는 출생하여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남을 돋고, 사랑하고,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것은 교회의 사회 참여와 신자의 사회 참여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세상 국가와 권리를 인정한다(요 19:10, 11). 예수님이 빌라도의 정권을 인정했고(롬 13:1, 2) 바울은 세상 정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같은 장 3, 4절에서 세상 권리는 선을 편장하고 악을 벌해야 하는 사회질서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한다(딤후 2:1-4). 신자가 왕과 집권자를 위해 기도하며 국법을 준수해야 할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하여(마 22:21)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방지한다. 교회 행정 문제를 세속 법과 앞에 가져 가지 말라고 하며(고전 6:1-6), 예수님이 이 세상 분쟁에 심판을 거절하여 신령한 일과 세속적인 일을 구분한다(눅 12:13, 14). 그러므로 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세력이라도 그것이 교회의 복음 전파와 진리 파수를 유린하려 할 때에 교회는 교회로서 세상을 향하여 타협 없는 투쟁을 해야 할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파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증거했다.

6) 신앙 고백의 교회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관의 신앙 고백을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구미제국의 개혁주의 교회가 많은 신앙 고백을 채택하였으며 한국의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성경 다음으로 신앙의 표준으로 채택하였다. 교회가 신앙을 파수하고 전파하려면 정확무오한 유일한 신앙과 생활의 표준인 성경을 확고히 믿어야 한다. 교회의 단합과 순결과 발전을 위해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이다. 장로교의 신앙 고백은 전적으로 성경에 근거한 것이며, 인류 구원을 위하여 주신 특수 계시로서의 성경이 충족성과 완전성을 가진다고 증거한다. 이 신앙 고백은 구구절절이 성경에다 기반을 두기 때문에 교회가 작성한 것이지만, ‘교회 가라사대’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었으되’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다.

로마 교회에서도 무수한 교리를 가지고 있으나 많은 분량의 교리가 성경의 근거를 갖지 못하여 도리어 반성경적이지만, 그 교리들을 신앙과 생활의 표준으로 삼는 것은 그 교리들을 제정한 교회가 성경보다 앞선다는 그릇된 성경관에서 온 것이다. 예를 들면 연옥설은 1449년 플로렌스 종교 교회에서 결정된 것이며, 마리아의 무죄잉태설은 1854년 법황 피오 9세가 선포한 것이고, 법황무오설도 1870년 바티칸 종교 회의에서 선포된 것이다. 그리고 1950년 법황 피오 12세는 마리아의 승천교리를 선포했다. 이렇게 비성경적인 많은 교리를 로마 교회가 믿게 된 것은 성경보다 교회 권위와 전통을 더 중요시한 까닭이다. 개혁주의 신앙은 로마 교회처럼 성경보다 교회를 우선하는 교회라든지, 교회의 무오설을 믿지 않는다. 지상교회는 불안전한 교회이지만 성령의 인도와 조명을 받는 교회관을 갖는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 14:16, 17). 여기 2인칭 복수는 교회를 가리킨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요 16:13)

4. 맷는말

하나님의 지상 교회가 복음을 전하여 죄중에 얹매인 심령들에게 새 생명을 심어 주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첫째 의무이고, 세상에서 사는 신자들에게 세상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정당한 우주관과 국가관, 사회관, 가정관, 인생관을 갖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인 우주의 주인이요 우주를 다스리며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을 중심한 복음전파의 교회를 바로 인식하고 성경에 근거를 둔 신앙 고백의 테두리에서 교회를 통한 봉사를 하나님께 바칠 때에 현대 교회를 도전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